

시청 야외음악당서 '아트 위크' 즐긴다

광주문예회관, 시립예술단 공연
장하은·김산옥 등 초청 무대
오늘부터 16일까지... 전석무료

광주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 '아트 위크(ART WEEK)'를 주제로 코로나19를 이겨낸 광주 시민들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4일 까지 광주시청 야외 음악당에서 시립예술단 공연과 기획공연을 선보인다.

첫날인 6일 공연에는 기타리스트 장하은이 참여해 '이웃과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주제로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 춤곡 '뭉바',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퀸의 '보헤미안 랍소디', 파헤벨의 '캐논',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연주한다.

오는 7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힐링 썸머 콘서트'가 열린다. 한상일 상임 지휘자가 지휘,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하고 박광신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는 국악계 명인들이 초청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국악관현악단은 '민요의 향연'을 시작으로 소리꾼 이은비가 '정음사'와 '열두 달이 다 좋아'를, TV프로그램 조선 판스타 우승자인 김산옥이 '배 띄워라'와 '상모'를 들려준다. 이어 장새납 연주자 이영훈과 관현악이 장새납 협주곡 '열풍'과 '용강기나리'를 함께 연주한다.

특히 이날 공연은 경기민요의 대가 김영민과 광주시립창극단 김규형 예술감독의 협연으로 더욱 이목을 끈다. 이들은 '오케스트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야외 공연 모습

/광주문화예술회관 제공

한(恨)', '신천안삼거리' '매화타령' '장부타령' '신고산타령' '궁초댁기'를 선보이며 공연의 흥을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다음 날인 8일에는 광주시립창극단의 '한여름밤의 울림'이 공연된다. 이 무대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과정을 한국무용의 선과 멋으로 표현하는 '사랑무'와 남도민요 '지경다짐, 액막이 타령, 신태노래, 내 고장 좋을씨구', 단막창극 '여보소 뺨댁이네'를 선보인다. 김규형 예술감독은 직접 무대에 올라 펼치는 모듬북 연주와 판소리 수궁가를 소재로 창작한 퓨전 재즈곡 '토끼 이야기'를 통해 국악과 양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선율도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싱 어롱 콘서트'도 9일 진행된다. 합창단은 코로나 방역

의 최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선별 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열린 야외음악당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다 함께 노래하자'는 의미의 '싱 어롱(Sing Along)' 무대를 연다.

이들은 온 가족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조은아 작가, 신상우 작곡의 '가족이라는 이름'을 시작으로 '부모님의 기도',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집', '썸머 메들리', 'Beatles and BTS'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14~15일 이틀간을 장식할 마지막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의 '빛의 정원 II'. 발레단은 지난 5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연 '빛의 정원 I' 공연을 성황리에 종료함

에 따라 다시 한번 이 무대를 선보인다.

발레단은 돈키호테 중 '큐피트', '파도되', 가야네 중 '사브레 댄스(칼의 춤)' 등 화려한 무대에 이어 백조의 호수 2막 왕궁 무도회 중 '러시안 댄스',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제5막에 삽입된 발레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아트위크의 대미를 장식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하경연 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낸 광주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공연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며 "이번 무대를 통해 많은 이들이 힘과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광주문화예술회관 '아트 위크(ART WEEK)'는 전석 무료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에서 1인 4매까지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담'

영산포구 등대(燈臺)

김홍식

오고 가는 비릿한 젖베에
시절을 모르고
실어 나르는 마도로스의 깊은 애한(哀恨)을
한 아름 가슴에 안은 채
홀로 외로이 강변에 우뚝 서서
내려다보고 있는 듯

ACC 어린이공연 작품 공모 아시아 관련 자유주제... 28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가족 단위 관람객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2022 ACC 어린이공연 장·제작 사업'에 함께할 예술 단체(예술가)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아시아의 생태·문화적 배경과 동시대 정점 등 다양한 소재를 이야기 씨앗으로 활용할 수 있다. ACC와 함께 어린이공연을 제작하고자 하는 예술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장르의 제한은 없다.

'ACC 어린이장·제작공연 작품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가(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젊은 소리꾼 김수인이 전하는 동초제 춘향가

목요열린국악한마당

7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오는 7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무대에 소리꾼 김수인이 초청됐다. 판소리 동초제 '춘향가' 공연이다.

차세대 소리꾼이자 국립창극단원 김수인은 10년 만에 고향 광주에서 동초제 춘향가 중 옥중가 대목부터 농부가까지 소리와 육자

백이, 흥타령 등 남도잡가의 소리판을 연다. 이 시대의 판소리가 지향하는 이상이 무엇 인지를 탐구하고 모색하는 젊은 소리꾼이 준비한 무대는 동초 김연수바디의 춘향가 소리다.

사실과 문학성을 중시해 이면의 깊이를 통찰하는 동초제 소리는 사실에 오자가 없고, 맏고 끊음이 분명해 문학적으로도 호평을 받는 소릿조다.

김수인의 춘향가는 김연수-오정숙-김선이-김수인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다.

특히 김수인의 스승인 광주시 무형문화재 흥보가 예능보유자인 김선이의 동초제 소리의 맥을 잇는 명창이자, 사적으로는 김수인의 어머니이다.

차세대 국악계 라이징스타로 꼽히는 김수인은 지난 5월 국립창극단 '춘향'의 몸공역으로 주연 데뷔했다.

젊은 소리꾼이 전하는 동초제 춘향가 무대는 민속타악연구회 단원 송대의 고수가 함께 하겠다.

공연은 유튜브 채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전석 초대 공연이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062-350-4557)로 문의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7월엔 문화누리카드 꼭 이용하세요" 광주문화재단 이용자 대상 이벤트

광주문화재단이 7월 한 달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운의 7월, 쿨하게 쏜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는 기간 내 구매 문화누리카드 결제 후 결제 내역과 성명, 연락처, 문화누리카드 사진을 '광주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총 77명에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오지현 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혼중개 서비스, 여보야

- ✓ 국내 결혼중개 서비스 중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남성회원은 2~3만원 정도의 비용으로도 성혼이 가능합니다.
- ✓ 여성회원은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1 ONE store